

## 기관돋보기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증평 · 삼보 하나 되어 더 가까이

증평삼보사회복지관(관장 오종식은)은 35년 가까이 증평군 복지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심축 역할을 이어온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에 따라 증평 · 삼보 통합복지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곳은 본관과 분관의 기능을 분담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복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5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노인일자리 사업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운영까지, 주민 중심의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일구어 가고 있다.

두 기관의 통합 시너지를 발한 삼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3회 연속 종합 A등급이라는 노부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증평삼보사회복지관

이번 인터뷰에서는 복지관이 걸어온 발전취와 주요 성과,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과제, 그리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지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비전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1991년 문을 연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을 전신으로 하는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은 35년 가까이 증평군 복지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충북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이곳은 과거 노인 · 장애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 없던 시절부터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책임지며 증평 복지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삼보사회복지관과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통합 이후 창신로 본관은 '복지행정과 기획'을, 송터로 분관은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조직 또한 3개 부서로 재편



증평삼보사회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 두 복지관의 경험과 전문성 하나로... 주민 중심 서비스 강화 노인일자리 · 경로식당 · 푸드뱅크 그늘드림 등 맞춤형사업 추진

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현재 76명의 전문 인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을 선도해 왔다.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를 비롯해 전국 최초의 야생화 생산 · 판매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2013년에는 충청북도 사례관리 거점 기관으로 지정되며 전문성을 입증했고, 현재도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증평군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사업은 복지관의 최대 강점이다. 2006년 시작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현재 6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사업으로 성장했으며, 환경정화 · 마을관리 · 노노케어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돕고 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고, 경로식당 · 푸드뱅크 · 그늘드림 · 밀반찬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세심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작은도서관과 문화 · 여가 프로그램은 주민 모두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의 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비결은 '주민 중심 철학'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있다. 복지관 직원 상당수가 15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사회복지사들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성이 큰 자산이다. 복지관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찾아가는 정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완성해가

고 있다.

이 같은 헌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빛을 발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사회복지관 시설평가에서 '3회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복지관 측은 이 성과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 덕분으로 돌렸다. 특히 30년 넘게 동행해 온 '사랑나눔봉사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 단체들은 지금도 따뜻한 나눔문화를 일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본관과 분관 모두 30년이 넘는 곳에서 호흡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통합 복지관의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민간 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은 지난 35년간 쌓아온 든든한 역사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발판 삼아, 주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증평군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늘 함께할 것이다.



신용한 충북지사(왼쪽)와 유응모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이 점심 배식 후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어르신에 사랑의 점심

##### 600명 따뜻한 식사 · 이미용 · 위문공연 봉사활동 펼쳐 신용한 충북도지사, 자원봉사자 격려 · 배식봉사 '함께'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는 12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연합봉사단(회장 심재훈, 나우리회 · 스마일봉사단)과 나눔의 인연 봉우회와 함께 '2026년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 600여 명에게 따뜻한 끼를 제공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나눔 실천 행사로 연합봉사단과 나눔의 인연 봉우회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이 · 미용과 위문공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충청북도지사 표창도 함께 수여됐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의 후원으로 의료상

담 부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주최한 유응모 회장은 "매년 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연합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우수봉사자 표창은 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회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 전했다.



충청북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충청북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충청북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통합 지원체계...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충청북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3일 문화동 뽕따칸타빌에서 '충청북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은 과장,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 발달장애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충청북도는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조직을 통합하고, 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팀'을 신설해 기관 명칭을 '충청북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발달지연 및 장애유형 영유아의 조기 발굴 및 지원,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달지연이나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 및 장애아동이 조기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이 적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청북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52)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을 창신로에 위치한 본관 전경.



증평을 송터로에 위치한 분관 전경.

## 가정위탁 사랑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족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 위탁부모가 되려면?

- 1)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
- 2)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 3)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NO
- 4) 친자녀수 4명 이하
- 5)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이수

#### 위탁부모 신청 절차는?

- 1) 가정위탁 신청 및 접수
- ↓
- 2) 예비위탁 부모교육 수료
- ↓
- 3) 예비위탁가정 상담 및 방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합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043-250-1226

# 청주시, 취약아동·청소년 1억 1000만원 기탁 받아

우리금융저축은행서 후원... 문화체험·환경캠프 운영 등

청주시는 9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저축은행, 월드비전 충북사업본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With 우리 소셜트립 프로젝트' 기탁식을 개최했다.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장섭 청주시장, 장장수 우리금융저축은행 본부장, 조성준 월드비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With 우리 소셜트립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 아동·청소년들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환경을 주제로 한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장장수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장섭 시장은 "아이들의



청주시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저축은행, 월드비전 충북사업본부와 'With 우리 소셜트립 프로젝트' 기탁식을 개최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우리금융그룹과 우리금융저축은행, 월드비전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청주시는 앞으로도 아이들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 단양군, 생활 속 환경 실천 '환경교육센터' 개소

군 자원봉사종합센터 환경교육 거점기관 '지정'

단양군은 생활 속 맞춤형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전날 단양군자원봉사종합센터를 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029년 5월까지 3년간 환경교육 거점기관을 운영한다.

환경교육센터 개소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군은 관광도시에 걸맞은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자원순환,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을 확대해 환경의식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에 따라 센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게 된다.

군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군민 모두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연수 환경정책팀 주무관은 "환경교육센터 개소는 군이 건강한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천시,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 발전방안 머리 맞대

맞춤형 복지 확대·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제천시는 이상천 시장이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를 방문해 노인복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회장 및 읍·면·동 노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의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사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동수 지회장은 "시장님과 직접 만나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확대와 전문화된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도입 등 노인의 건강과 안전,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를 비롯한 노인복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 복지는 단순



이상천 제천시장(오른쪽)이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를 찾아 노인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한정된 재

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
|-----------------------------------------------------|
|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
|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
|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

## 음성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 5500만원 확보... 참여자 50명 선착순 모집

참여 수당·인센티브 지급 및 구직단념 청년 사회 복귀

음성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5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비를 바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참여자를 지난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구직활동을 멈춘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과 진로설계, 취업역량강화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과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청년으로 구직단념 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북한이탈청년, 가슴기 살균제 피해청년 등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운영기간에 따라 단기 5주 과정(2기)과 중기 15주 과정(3기)으로 나눠 음성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자신감 회복활동부터 직업체험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진로탐색, 구직 기초소양을 향상시키는 취업 역량강화과정, 다양한 외부 연계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은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모두 50명이며 과정을 마친 이수 참여자에게 단기 최대 50만원, 중기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과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중기 참여자가 프로그램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취업해 3개월간 근무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24 구직등록과 직업훈련 알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사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음성상공회의소 ☎070-7178-99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천군, 치매환자 보호자 '기억 가족 멘토단' 운영

7월부터 3개월 운영... 전국 7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진천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환자 보호자 노인일자리'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기억 가족 멘토단'을 운영한다.

진천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환자 보호자 노인일자리'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이달부터 3개월간 '기억 가족 멘토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초기 치매 진단 단계에서 신규환자가 겪게 되는 정보부족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국에서 서울 5개 구와 충북 2개 군(진천·음성) 등 7개 시·군·구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

다.

사업은 진천군치매안심센터가 참여자들의 직무교육과 현장 운영 총괄을 맡고, 진천시니어클럽이 행정지원과 참여자 관리를 전담한다.

참여 대상은 센터에 등록한 치매 환자 보호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명이다.

최종 선발된 멘토는 월 30시간 근무하며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이들은 지난 2일 직무교육을 마친 후 치매 환자 심터 등에 배치되어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고, 신규 보호자 대상 1대 1 돌봄·장기 요양 정보 제공과 말벗, 내소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채은경 군 치매관리팀장은 "정부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추진하는 중요 시범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2027년 전국 확대 때 진천군의 사례가 대한민국 표준 지침이 되도록 사업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시

건강 측정, 순환운동 등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충주시는 1일 아현체육센터 3층에 '충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이 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주민에게 1대 1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초 건강 측정(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성분)과 상담, 고도 비만자 순환운동교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 증진 교육, 어린이 건강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수·교현안림·교현2동을

관할 구역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043-850-3490~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일상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 수준을 높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 전국 아동·장애인 시설 등 종합평가 최우수

전체 시설의 51.4%A등급... 운영 수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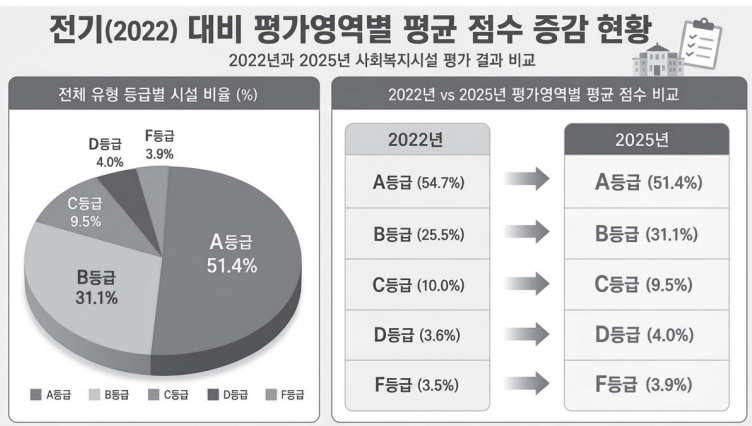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4개 유형의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운영 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은 아동생활시설 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0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6개소 등이다. 올해 총점 평균은 86.8점을 기록해 직전 평가인 2022년(87.9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상대평가 지표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후관리의 긍정적인 효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직전 평가에서 미흡 등급(D·F)을 받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던 58개소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58.3점 → 72.1점)이나 상승했다.

반면,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 시설 89개소(전체의 6.3%)는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규와 기존 시설 간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크게 벌어져 초기 운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2022) 대비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복지부는 점수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에는 최대 700만원,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최대 35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미흡 시설을 위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맞춤형 컨설팅 진행 시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동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투입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사해도 복지서비스 그대로... 전산관리번호 개편

개인정보 노출 차단·의료 이용 편의성 개선  
유령수급 자동 점검으로 복지재정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일부터 전면 개편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를 시행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행려환자, 출생 미등록 아동, 위기 임산부 등)이 무사히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임시 번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742명, 실제 급여 수급자는 1786명에 달한다.

그동안 13자리로 구성된 전산

관리번호 안에는 주소지와 입소 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번호 구성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 알파벳을 모두 삭제했다. 앞으로는 이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대상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 누락을 원천 차단한다. 시스템상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발송해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관계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도



현행 전산관리번호 구성 예시.

한층 고도화된다. 건강보험공단 전산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말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취약계층 아동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역시 더 강화된다. 시

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타내는 이른바 ‘유령수급’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용 기록이 없는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시킨다.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상시 체계로 전환해 복지 재정 누수를 막는다.

## ‘취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심장·간·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취장장애’를 신설,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취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취장 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취장의 인

술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장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취장장애다. 등록 이후 취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전향으로 임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장에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취장장애 등록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

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안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되었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에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

편 등을 통해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엔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그만

초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매년 여름·겨울방학 운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방학 중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점심돌봄센터 1000개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가 큰 고민이다.

틈새돌봄사업은 이러한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1일 2천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 예정이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운영하고 매년 방학 시기 지속할 계획이다.

7월 27일부터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도 인근이용가능센터 문의가 가능하다. 지정센터 현황은 27일 이후 국가아동관리 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가까운 공공시설로... ‘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전국 12개 지역 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500여 곳

성평등가족부는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이며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총 500여 곳을 중심으로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공생리대 이용 가능 시설을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생리

대를 이용하면 된다.

생리대는 정부 제공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라고 새겨진 포장지 1팩에 중형 생리대를 2개씩 담아 제공하며, 각 시설의 지정된 담당자가 생리대 비치와 운영상황 관리를 담당한다.

서비스는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 지급기와 자동 지급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 설치된 수도 지급기에서 생리대를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지급기는 전원공급 장치와 IoT 기능을 갖춘 장비로 이용자가 기기 전면의 ‘받기’ 버튼을 누르면 지급된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생리대 지급기 예시.

성평등가족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지도 검색을 통해 가까운 이용 시설과 생리대 재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 충북모금회, “올 여름 쿨~하게 보내요”

희망여름 나눔 캠페인  
취약가구 냉방비 지원  
무형산업개발 1억 기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7일 ‘2026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충북 쿨(Cool)하게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여름철 나눔문화 확산과 도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과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유응모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충북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원, 모금·배분분과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한 여름철 연중모금캠페인이다.

캠페인명에는 착한 기부로 착한 이웃이 되어 무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 14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도 진행됐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6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충북 쿨(Cool)하게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무형산업개발 주식회사는 5년간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충북의 열네 번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눔명문기업은 사랑의열매에 누적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사회공헌 인증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배분금 전달도 이어졌다. 이날 전달된 배분금은 모두 5억 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폭염과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

인, 취약가구의 냉방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쿨하게 키트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키트는 도내 푸드뱅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쿨하게 키트를 제작하는 체험도 진행됐다.

키트에는 삼계탕과 곰탕, 전복죽 등 간편식과 쿨토시, 쿨스카프 등 냉감용품, 바다위시와 칫솔, 치약 등 위생용품, 응원 메시지가 담겼다.

신용한 지사는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혼자서는 버

티기 힘든 이웃들에게 나눔은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된다”며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성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착한 기부가 착한 이웃을 만들고, 모두가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충북모금회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복지재단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청주복지재단, 중앙공원 인근 신청사 개관

공간 830㎡로 확대, 기능 보강  
시민 접근성·기관 협력 강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은 13일 상당구 중앙공원 인근 새 청사에서 개관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재단은 이날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5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장섭 청주시장과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전 개관을 축하했다.

행사는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트로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민 희망메시지 낭독, 개관 기념 퍼포먼스,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안 돌봄 리더가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메시지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희망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지역 복지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부대행사도 운영됐다. 재단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적는 ‘청주복지재단에게 바란다’ 희망 메시지와 원데이 프로그램 ‘한 자루의 행복’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청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기존 모충동 청사에서 중앙공원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을 기존 466㎡에서 830㎡ 규모(지하 1층~지상 3층)로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해 시민과 복지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청주복지재단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주의 중심에서 복지를 잇는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한 ‘제3회 2026 충북 SR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 AI가 바꾸는 노년의 일상 ‘충북 SR 포럼’

SK하이닉스·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AI활용·디지털 돌봄 등 고령화사회 해법 모색

SK하이닉스는 8일 충북 C&V 센터에서 ‘제3회 2026 충북 SR(Social Responsibility) 포럼’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유태종)이 공동주관한 이번 포럼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변인순 충북도 AI과학인재국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유태종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AI가 바꾸는 일상, 고령화 사회 노인의 디지털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단순한 디지털 교육을 넘어 AI 기술이 노년의 삶과 돌봄 체계에 가져올 변화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동선 공금한보연구소 대표

는 기초강연에서 인간의 뇌와 AI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며 AI 시대의 변화를 조명했다.

이어 김상경 경희대 교수는 AI가 노년층에게 제공할 새로운 가능성, 하정화 서울대 교수는 AI 기술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사회의 역할을 각각 제시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박영란 강남대 교수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ICT 해피에이징’ 운영 성과를 소개했고, 장성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팀장은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햇살버스’ 사례를 발표했다.

포럼 마지막에는 전문가와 시

니어 서포터즈가 참여한 토론과 시민 공감 토론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돌봄과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사회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연결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SK하이닉스는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만드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술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CT 해피에이징’ 사업을 확대하고 고령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유관기관과 기념식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창수),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상배)은 13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특히 10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도내 각 지역에서 거리 캠페인 및 온라인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도내 유관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경 통합 대응체계의 결속을 굳건히 다지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1부 행사로 기초강연에서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학대 20년 추이 비교분석’을 주제로 그간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의 변화와 충북도의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민관경 협력을 바탕으로 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

다. 이어진 2부 기념식은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 노인학대 예방 슬로건 공모전 수상자 시상, 도내 유관기관 노인학대 예방 릴레이 다짐 영상 시청, 노인학대 근절 의지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역민 ‘하나로’

안정적 정착 격려·지원

통일부와 충청북도 지정 지역 적응센터인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장인숙)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2일 청주 벨리스웨딩홀에서 도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충북하나센터는 2024년 청주, 2025년 충주 행사의 일환으로 도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격려하고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청북

도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이 주요 내빈을 비롯해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격려하며, 남북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복지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SSN 교육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법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책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에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전면 개편했다.

첫째,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40개 핵심 정책을 5대 키워드로 선별해 책자 전면부에 별도 배치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혜택을 바로 찾도록 가이드맵을 수록하고 분야별 주요 정책은 삽화로 표현했다.

둘째, 책자의 내용 및 구성도 수혜자인 국민 관점의 언어 사용, 기대효과 및 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명확히 하고, 정책별 체감 사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 추가 및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AI)에서 검색이 더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최적화된 마크다운(Markdown)형식으로도 병행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전자 도서관, 고정기관 등에 배포·배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사이트(whatsnew.mofe.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편집자주〉

## 교육·보육·가족분야

### ●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으로 확산되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생활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를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AI·디지털배움터 32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기존 시설과 함께 전국 6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배움터에서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비롯해 AI의 개념과 활용법, 윤리 교육 등 AI 기초 역량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AI·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은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에 앞서 학습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AI·디지털배움터는 2026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AI·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디지털배움터 콜센터(☎1800-0096)를 통해 가까운 배움터와 교육 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지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선지급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 집행권원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 보건·복지·고용분야

###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국 확대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은둔을 겪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단편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윈스톱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돌봄 대상 가족의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를 보다 간편하게 연계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또한 장학금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고립 정도를 고려한 공동생활, 일상 회복,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단계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과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회복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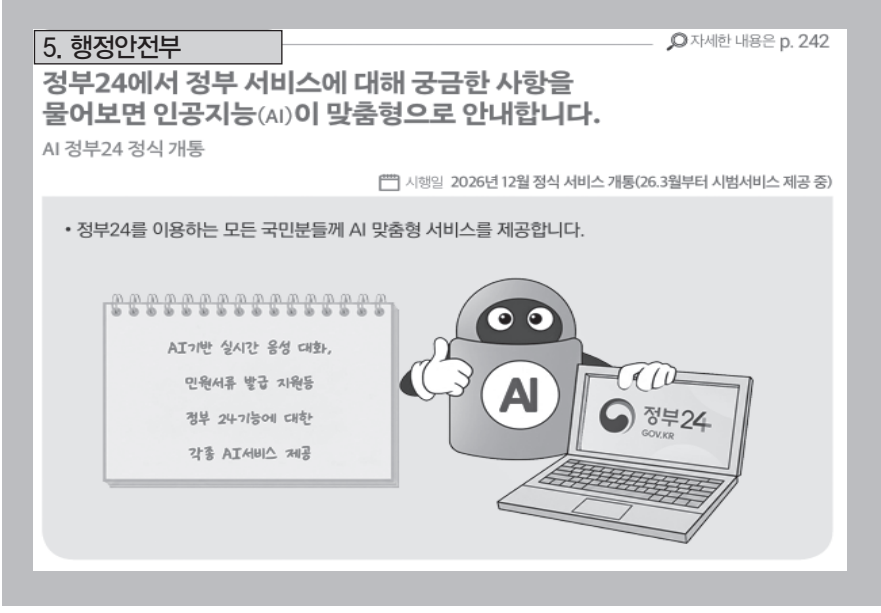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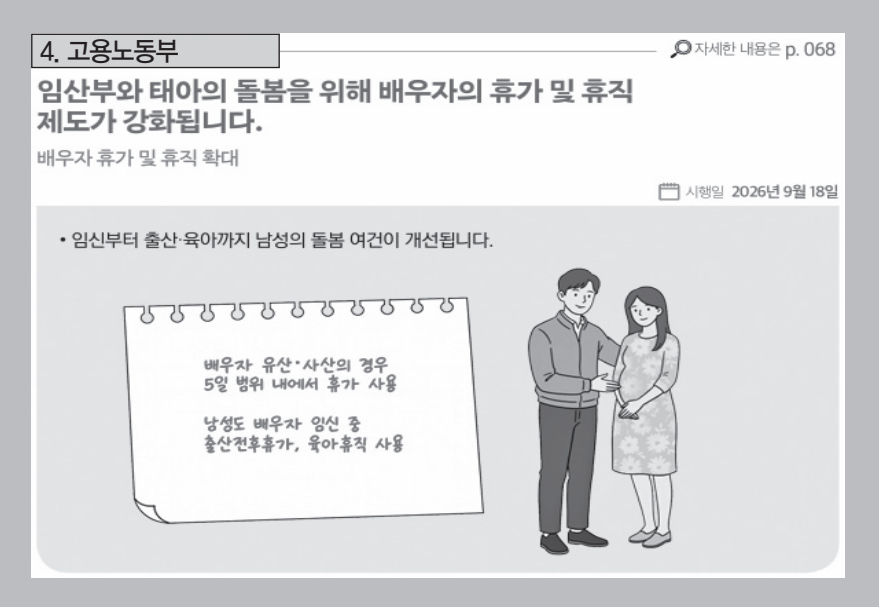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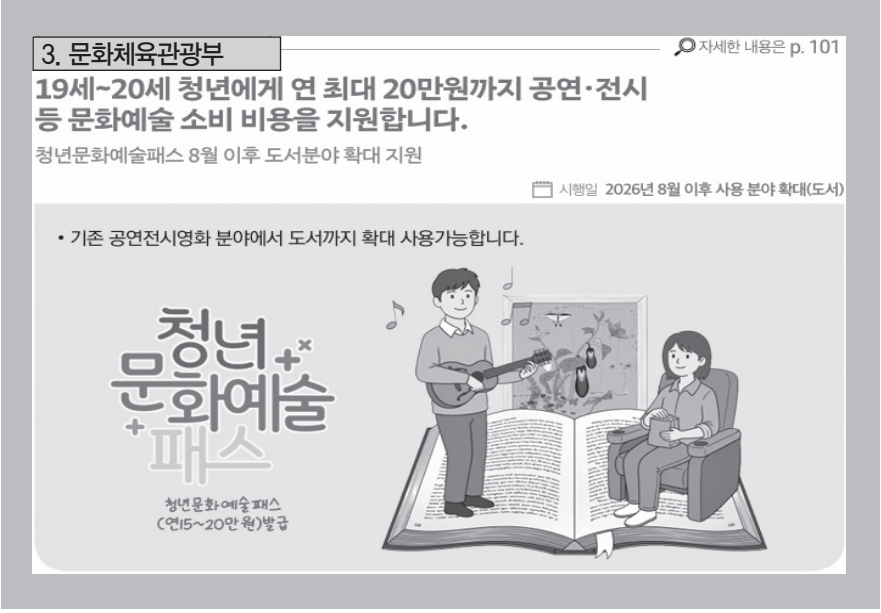
신청 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은 13세부터 34세, 고립·은둔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족이 온라인이나 청년미래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그랑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랑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과 본사업 운영을 거쳐 2026년 9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45건 정책 변화 한눈에, 체감 높은 40개 핵심 정책 5대 키워드

## AI 검색 친화형으로 개편… 국민 누구나 쉽게 찾는 정책 안내서



‘그랑드림’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계에 위기를 겪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먹거리 지원사업이다. 이용자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 복지상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받을 수 있다.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되던 사업은 2026년 5월부터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그랑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지원 필요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처음 이용할 때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두 번째 이용부터는 기본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도 함께 제공한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6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기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휴가 기간 동안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급전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만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근로자의 출산·육아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휴게시간 제도를 개선한다. 반차 사용이나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가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 종료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반차 사용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휴게시간 사용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리용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바우처 지원을 넘어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바우처 지원을 유지하면서 공공시설 현물 지원을 병행해 지원 대상과 이용 방식을 확대했다. 이용자는 지급기를 통해 1팩(2개입)의 생리대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02-2100-6000)에 가능하며, 시범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출처: 재정경제부〉

복지광장



이 민 아

음성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

“아우~ 아파~!!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너무 아파~”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픈 우리 어르신에게 통역사는 의사이자 간호사, 약사 같은 존재인가 보다.  
매일 영상전화를 걸어오시는 어르신께 “내일은 휴가라 다른 직원에게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휴대폰이 울린다. 주말도, 새벽도, 늦은 밤도 마찬가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그이 알지? 그 여편네가 나를 보자마자 살이 쯤데!” 하며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다.  
우리 동네 농인들은 모두 통역사의 이

나는 잠시, 그 사람이 된다

용인이지만, 우리 어르신에게 통역사는 나 하나뿐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약점과 질병, 걱정은 물론 통장 비밀번호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하신다. 그만큼의 신뢰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밤낮없는 연락도, 투박한 농담과 투정도 웃으며 받아들이게 된다.  
ATM기 앞에서는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달라고 하시고, 어느 날은 차 시동이 걸리지 않자며 보름을 불러달라고 30분을 운전해 센터를 찾아오셨다. 정작 가입한 보험회사는 본인도, 가족도 알지 못했다.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 차량 판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 순간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막막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분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2006년 수어통역사가 된 그날부터 2026년 오늘까지, 나는 아직도 ‘수어통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거 홍보물을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역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그분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어진 고령의 농인이었다. 말도, 수어도, 글도 익히지 못한 무학의 농인이어서 그림과 몸짓을 섞어가며 통역인지 연

극인지 모를 대화를 이어갔다.  
사정을 들어보니 길가에 쌓인 홍보물을 폐지로 착각해 가져간 것이었다. 고의성이 없고 물품도 모두 회수돼 귀가 조치가 이뤄졌고, 다시는 선거 관련 인쇄물은 가져가지 말라는 당부를 전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또 어느 날 검찰에서 통역 요청이 들어왔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한 여성은 자신의 투자 권유를 믿고 자신도 돈을 맡기고 주변에도 소개했지만, 상대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는 그의 절박함을 그대로 통역했고, 통역을 마친 뒤에 또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선임은 “그 말을 다 믿어?”라고 물었다. 얼마 뒤 그 여성이 해외에 있다며 급하게 우편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비용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락을 끊으면서 나는 통역사가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것과 그 말을 사실로 믿는 것은 다른 일임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담을 해야 하는데 청각장애가 있으셔서요, 통역 부탁드립니다”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상담을 받으러 온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형에게만 재산을 주려는 어머니와 형이 짜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물병을 던진 사실도, 어머니를

밀친 사실도 인정하면서 “아프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긴 상담이 끝났고, 얼마 뒤 법원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통역 잘 부탁해요, 알아서 잘 말해주세요, 통역 잘못해서 실형 나오면 나 화 날 거예요”  
남성의 신뢰 확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마지막 진술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나는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통역했다. 남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오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통역사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낸 걸까?  
의사는 환자를 가려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전쟁 속에서도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한다. 그렇다면 나의 직업 윤리도 그와 같은 것일까?  
수어통역사는 통역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된다. 나의 가치관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가 살아온 배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그의 언어를 대신 전한다. 그래서 때로는 지식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시골의 아낙이 되기도 하며,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범죄자의 목소리마저 대신 전해야 한다.  
2006년 수어통역사가 된 그날부터 2026년 오늘까지, 나는 여전히 ‘수어통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칼럼

오늘도 빵순이로 살아갑니다



이 호 영

구세군기초푸드뱅크 실장

‘빵순이’ 고등학교 때의 별명이었다. 갓 지은 밥은 안 먹어도 빵은 늘 입에 물고 다니던 빵순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닭을 토막 내어 튀겨주시던 시골에서 자란 나에게 생일 케이크는 늘 굴 몇 조각이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뿐이었고, 다른 빵들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시로 이사한 뒤 처음 맛본 다양한 빵들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빵순이라는 별명은 당시의 내 일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었다. 물론 성인이 되고 빵보다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별명과는 멀어졌다.  
그런데 최근, 나는 또 다른 의미의 빵순이가 되었다.  
내가 이 센터를 다니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가정사로 청주에 내려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잠시만 다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특별한 사명감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다녔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배분할 물품이 유난히 적었다. 물건이 많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식품을 담고 있을 때였다.  
“실장님, 저는 이곳에 오는 게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해요”  
장에 있는 한 이용자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건넨 한마디였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그 표정과 말 한마디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왜? 여기에 오는 게 왜 행복하지?’  
센터는 10평 남짓한 공간이다. 창고와 사무공간을 제외하면 두세 사람 정도만 설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기다려야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서 있어야 한다. 더위를 피할 공간도, 추위를 피할 공간도 넉넉하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행복한 걸까, 빵 열 개 남짓과 가끔 들어오는 신선식품, 달걀, 두부 몇 모, 매주 한 번씩 받아 가시는 것이 전부인데.  
그날 이후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

상과 기부식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실장님, 저는 이곳에 오면 빵과 달걀을 받아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일을 버팁니다”  
“여기에 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옆집 사람과도 같이 나눠 먹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함께 나누는 게 더 즐거워요”  
“지인들이 와서 이 빵이 유명한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챙겨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촛불도 불어봤어요”  
이용자들의 고백은 참 신기했다. 본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표정에는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었다. 내게는 평범했던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한 끼가 되고, 가족을 위한 식사가 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를 변화시켰다.  
어떤 이용자분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말도 어눌하시고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용자들과 어울리고 꾸준한 운동을 이어가신 끝에 이제는 직접 운전까지 하고 다신다.  
또 어떤 이용자분은 파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푸드뱅크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몇 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되었다며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이용을 중단하신 분도 계셨다.  
또 어떤 분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용자들을 먼저 살펴보고 함께 도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그분들의 삶은 나에게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 이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는 소중한 일터가 되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팔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다. 겨울에는 눈길에 차가 미끄러질 때도 있고, 무거운 물품을 나르다 한의원을 꾸준히 다녀야 했던 적도, 물품을 수령하느라 점심을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먹는 날도 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마음이 있다.  
내가 정성껏 전달한 식품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빵순이’라는 말은 단순히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의 한 끼를 기다리고, 그 한 끼가 전하는 희망을 함께 나누는 사람.  
나는 오늘도 그렇게 빵순이로 살아간다.

현장의 목소리



김 서 영

충북청년미래센터 인턴

김 씨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가 이제는 쓰지 않아 자리만 차지하는 건조대를 발견했다. 당근마켓에 올리기를 위해 사진을 찍고 가격을 입력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간다. 오전 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려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머뭇거린다. 결국 김 씨는 게시 버튼 대신 취소 버튼을 누른다. 집 안을 정리하려면 마음은 어느새 무거운 망설임으로 바뀐다. 김 씨처럼 당근마켓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 그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히 중고거래 때문만은 아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팔아 얻는

수급자의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돈은 대부분 몇만 원 수준이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한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 금액은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 소득으로 기록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복지의 문은 처음부터 좁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은 물론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사항까지 확인받아야 한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자신의 생활 형편을 반복해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남긴다. 서류에는 단순한 숫자뿐 아니라 각자의 생활 형편까지 함께 담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걱정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통장에 찍히는 작은 금액 하나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오전 원짜리 건조대 하나를 팔았다고 곧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지,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떤 소득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적지 않다. 결국 사람들은 작은 거래 앞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한다.  
이러한 불안은 김 씨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로 소득이 조금 생겼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수급 변동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수급자들은 일에 대한 욕구가 높았지만, 일을 하면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에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 일을 포기한다. 자립하고 싶었던 사람이 스스로 멈춘다. 제도의 구조가 오히려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일하고 싶은 마음과 일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사이에서 사람들은 결국 후자를 선택한다. 그 선택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제도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급여 절벽’ 문제다.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었다고 해서 지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조는 사람들을 지속적인 불안 속에 머물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지만,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쓰이는 ‘방향’이다.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급여

전액이 끊기는 구조를, 소득이 늘수록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금 벌었다고 전부를 잃는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선뜻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렵다. 필요한 건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오르막이다. 일을 하면 할수록 형편이 나아진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자립의 사다리에 발을 내딛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김 씨는 게으르거나 예민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조금 더 신중했을 뿐이다. 그 신중함이 자립이 아닌 망설임으로, 용기가 아닌 포기기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김 씨에게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이런 걱정을 유난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이다.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그렇기에 복지 제도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통장에 찍히는 당근마켓의 몇만 원이 불안의 씨앗이 되는 사회라면, 지금의 복지 제도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안전망’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이다. 사람들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유, 실수해도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런 여백을 만드는 일이 복지 제도에 남은 숙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  
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제 아들이 얼마 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과 충돌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토바이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인 제가 아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먼저 아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민법 제753조). 책임능력은 나이나 학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아들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개별적·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반면, 이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었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은 아들이며,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 회장 원승희 / 6월 26일자

■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 회장 박용훈 / 7월 1일자

■ 음성군노인복지관  
▷ 관장 이영민 / 7월 1일자

■ 음성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前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센터장 김길찬 / 7월 1일자

■ 한빛복지관  
▷ 관장 임준호 / 7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家)꿈이봉사단, 정리수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 소속 '가(家)꿈이봉사단(이하 봉사단)'은 정리수납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분기별 1회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리수납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봉사활동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정리수납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생활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관계

이창신 www.bokmani.com

떡을 돌리면 떡만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이 보냅니다.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같이 가야 합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2026.4.16.

질병관리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세 남성청소년도  
HPV 무료 예방접종!



대상

12세 남성 청소년 | 2014. 1. 1. ~ 12. 31. 출생자

기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백신

HPV 4가 백신

횟수

2회 접종(6개월 간격)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형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회차별 40명 이내
- 주요내용: 주택체험관, 유디체험관 및 휠체어 체험관 견학 \*무상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공간 체험
-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 적용 일상 용품을 이해 -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형 체험(볼구리 바닥로, 경사코스 등)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https://www.043w.or.kr/www/index.do

【청주정신건강센터,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속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 운영기간: 2026년 2월 말 ~ 10월
- 운영형태: 당일형·숙박형 숲체험 프로그램
- 사업대상: 청주 지역 정신장애인 및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당일형 5회, 숙박형 4회 총 9회기 운영
- 숲길 걷기, 명상, 감정 나눔, 자연 기반 체험 활동 등
- 신청문의: 청주정신건강센터(043-285-0102)
- 접수방법: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cjmental01@naver.com) 접수

【GKL사회공헌재단, '2026년 GKL과 함께하는 행복여행'(가족대상) 참여기관 2차 모집】

- 신청기간: ~2026. 8. 3.(일) 17:00
- 모집규모: 8~10월 여행 참여 8개 기관

【한국장애인재단, 2026 장애 공감 공모전 안내】

- 신청기간: ~2026. 8. 11.(화)
- 공모주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내용을 담은 창작물 \* 장애를 시련, 극복할 문제,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콘텐츠 지양
- 참가요건: 장애 공감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팀의 경우 최대 4인까지 가능)
- 공모부문: 영상-숏폼(60초 이내 분량, 세로형), 롱폼(2분 이내 분량, 가로형)
- 시상내역: ①부문무관(대상, 200만원/최우수상, 100만원/특별상, 30만원) ②숏폼(우수상, 50만원/입상, 30만원/공감상, 10만원) ③롱폼(②와 동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참고: https://www.gklfund.org
- 문의: 모금마케팅본부(02-6399-6237)

【밀알복지재단, 중증 안면, 피부질환 긴급지원사업 리본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중증 안면·피부질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생계비 및 의료비(최대 500만원)
- 대상질환: 두개안면기형, 혈관·림프계 기형, 피부 화귀난치질환, 중증 화상 등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참고: https://www.miral.org
- 문의: 긴급지원사업 담당자(02-6411-3632)

【홀트아동복지회, 2026년 취약계층 통합위기관리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상시
- 사업대상: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갑작스러

【함께하는사랑발,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희망이을 결연지원, 희망가정 키움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화상 및 화귀난치 지원, 온라인 모금캠페인 지원
- 신청주제: 위기가정 개입 및 사례관리 기관(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love.holt.or.kr
- 문의: 충청지부(042-586-1983~4)

【열매나눔재단, 위기가동가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중복신청 가능)
- 신청주제: 위기가동가정 사례관리가 가능한 지역 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merryyear.org
- 문의: 임팩트사업 1팀(02-2665-0046)

【밀알복지재단, 뇌전증환자 로봇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지정병원에서 의료로봇 수술을 받는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 뇌전증 환자(전 연령)
- 지원내용: 비급여 뇌전증 로봇 보조검사·수술 본인부담금(700만원 한도)
- \*수술 일자가 확정된 후 1개월 전 신청 권장
- \*이미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merryyear.org
- 문의: 뇌전증 지원사업 담당자(02-6411-3628)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4-0840

▶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6-0111

▶ 초등학생 학습·놀이지도  
관리센터: 푸른꿈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63-5793

▶ 관내 경로식당 배식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883-2470

▶ 장애인디지털리터시 환경정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75-7411

▶ 복지관 서류정리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834-3411

▶ 미술지원단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66-476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